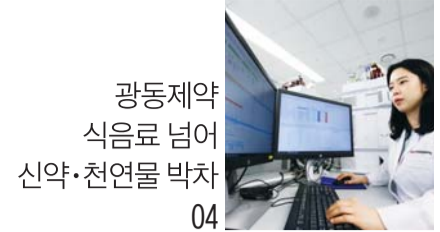


24일 Market Index			
↑ 코스피	8471.02	↑ 코스닥	909.31
	(+267.18)		(+17.79)
↑ 금리 (미국 3년)	3.772	↑ 환율 (원/달러)	1543.55
	(+0.002)		(+4.45)



광동제약
식음료 넘어
신약·천연물 박사
04

금리인상 시그널... 영끌·빚투족 '이자 청구서' 날아온다

한은 “적절한 시기 인상 필요”
부동산·주식 대출 수요 억제 효과
1분기 가계대출 1993조, 3.5% ↑
이미 대출보유 차주엔 ‘상환 부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명시하면서 빚으로 집과 주식을 산 ‘영끌·빚투’ 차주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대외 충격으로 시장 금리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오르면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은은 24일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 압력 확대와 경기 개선 전망,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금리 인상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향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와 가계의 이자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Chat GPT가 생성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미지.

는 차입(대출) 수요를 억제해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이미 대출을 보유한 가계와 자영업자에게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우는 ‘빚 청구서’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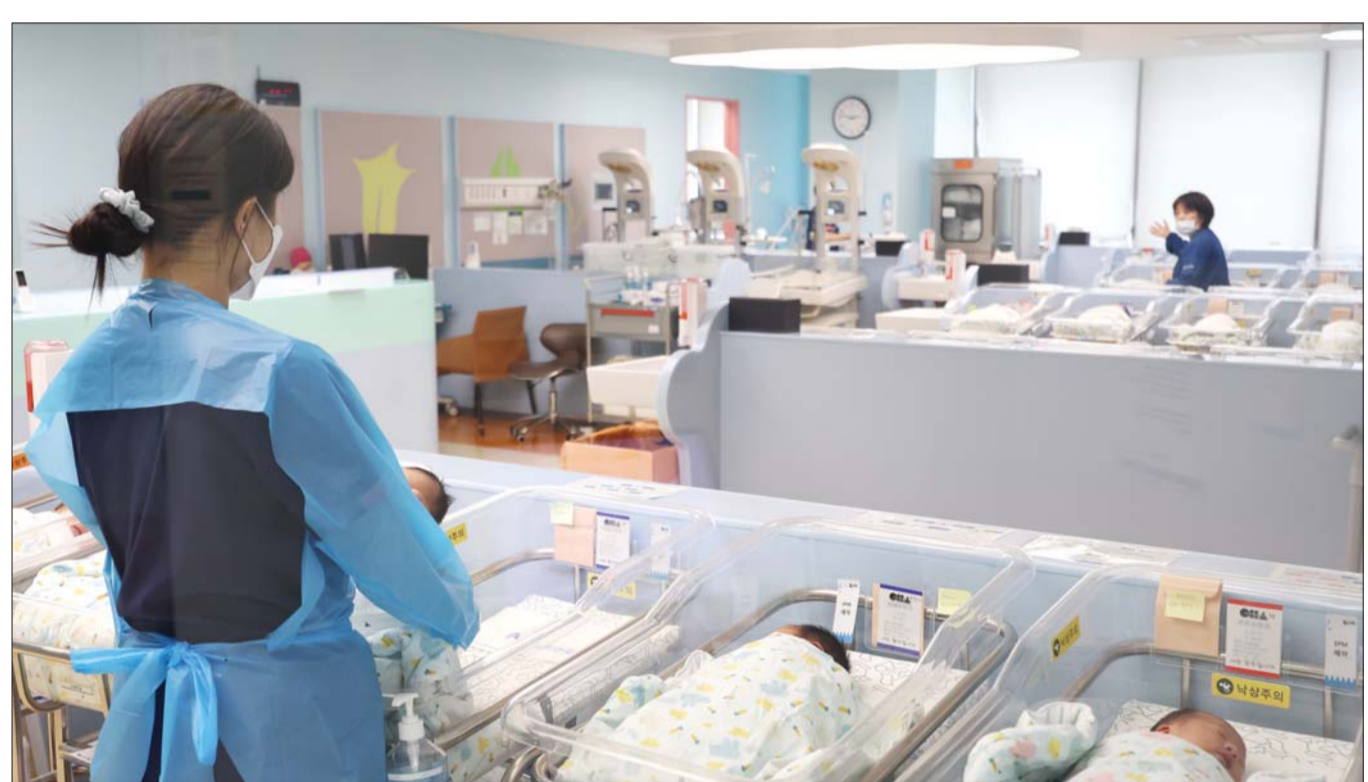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가계빚)은 1993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거래와 주식 관련 대출이 함께 늘면서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폭은 9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신용융자·신용미수 잔액은 39조4000억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은 35조4000억원에 달했다.

자영업자 대출도 1095조5000억원으로 전체 금융권 가계·기업대출의 28.5%를 차지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4%였지만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68%까지 치솟았다.

대외 여건도 변수다. 한은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각되면 국내외 금리 상승 기대와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채금리와 금융기관 조달금리가 함께 오르면 가계·기업 대출금리와 이자 부담으로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의 시장금리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과 기업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호금융의 예상 신용손실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자이의 증가 등을 감안하면 금융기관의 자본비율 하락폭은 업권별 최대 0.2%포인트(p)에 그쳐 금융시스템 전



신생아 수 증가율 ‘역대최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9만953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5% 늘었다. 이날 경기 고양시 CHA의과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6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4521명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3734명(18.0%)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4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체의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금리 인상은 레버리지(차입)를 활용한 주식·부동산 투자의 취약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채무가 많은 취약차주의 부담은 높일 수 있다”며 “두 가지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삼성전자, 90조 자사주 매입 임박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용 주가 환산 시점 따라 주가 수 달려

삼성전자가 향후 최대 9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자사주의 실제 수령 물량은 주가 흐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회사 측은 지급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최종 결정은 아직 남아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달 노사 임금협상에서 타결된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확정된 재원을 주식으로 환산해 지급한다. 이때문에 어느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환산하느냐에 따라 직원 1인당 받는 주식 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세후 지급 재원이 1000만원으로 같더라도 기준 주가가 25만원이면 40주를 받지만 40만원으로 오르면 25주로 줄어든다. 주가가 오를수록 같은 재원으로 받는 주식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다.

주식 형태의 성과 보상은 통상 지급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수량을 산정한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지급 시점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정 기준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매입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삼성

전자가 향후 3년간 매입해야 할 자사주는 약 2억9000만주로, 보통주 발행주식의 5%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주주환원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 총액 30조 7000억원의 3배 규모다.

매입 재원은 노사 합의에서 나왔다. 삼성전자는 DS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책정했으며, 지급할 상환은 두지 않았다. 증권가 영업이익 전망을 적용하면 2026~2028년 3년간 성과급 총액은 약 154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 약 40%를 원천징수한 실질 지급분이 약 90조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조건부주식(PSU) 지급분과 완제품(DX) 부문 1인당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분이 더해진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3년 영업이익 합산액 1514조원을 적용하면 매입 규모는 더 늘어났다.

지급되는 자사주가 전망 관바로 시장에 풀리는 것은 아니다.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주식은 3분의 1만 즉시 매도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과 2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이에 매입 수요와 락업(보호예수) 효과가 맞물려 유통 물량이 줄면서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자사주의 매입 시점과 규모, 분할 횟수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매입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삼성

SK하이닉스, 美 ADR 상장... 45조 조달

내달 10일... 신주 1779만 주 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팹 건설 등 조달자금 전액 시설투자에 사용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상장을 확정하고 최대 45조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선다. 확보한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패키징 공장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메모리 생산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예정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공모와 미국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 상장을 결정했다. 상장 예정일은 내달 10일이다.

이번 ADR 발행은 제3차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를 해외 위탁기관에 맡긴 뒤 이를 기초로 ADR을 발행해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뉴시스

다. 신주 발행 규모는 1779만주다.

SK하이닉스는 ADR 발행 총액을 최대 45조4534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전날 종가(255만50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참고금액으로, 실제 모집 규모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북 빌딩)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달한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건설과 청주 P&T7 어드밴스드 패키징 팹 구축, 극자외선(EUV) 스캐너 등 기계장치 취득을 포함한 시설투자에 전

액 사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ADR 상장이 단순한 투자 재원 확보를 넘어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기업가치 재평가를 겨냥한 행보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 선두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미국 경쟁사인 마이크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 자금을 넓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공모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며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



▲김호철 감사원장 “선관위 회계감사 위한 자료 수집 시작” /사진 뉴시스
▲김용범 “삼성·SK 영업의 성과급, 노사 쟁의 대상 되는지 논의해봐야”

▲김어준 “李 대통령 지지율 하락, 코어 지지층 이탈 때문”
▲“권궐에 노쇼” 끝나버린 학폭 소송... 法 “유감이지만 재개는 못해”

▲민주노총 “노봉법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법 취지 어긋나”
▲아동급식카드로 술·담배 사고 허위결제까지... 정부 관리 강화